

## 학부모들의 성의식, 성교육 태도 조사 연구

임미림\* · 변영순\*\*

\*동우대학 간호과 조교수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과학대학 교수

## A Research Study on Sexual Awareness of Parents in the Area of City

Lim, Mi-lim\* · Byun, Young-Soon\*\*

*\*Assistant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Nursing, Dong-u College*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Nursing, Ewha Womans University*

###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level of sexual awareness and the demand for sex education, to investigate the attitude toward and acceptance of heterosexual friendship, and to identify the experience and direction of sex education of parent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119 parents with high school students by the structured questionnaire from June 1, 2001 to August 31, 2001.

Parents and teachers showed a similar attitude on sexual awareness, but teenagers showed a different attitude. In terms of the level of feeling of and interest in 'sex', teenagers, parents and teachers were comfortably accepting it. As for sexual curiosity in puberty, 84.8% of the parents and 95.5% of the teachers responded that it was natural, whereas only 14.7% of teenagers responded that it was natural. But As for the item that 'sex is natural as one of human needs', 3.6% of the teenagers, 16.8% of the parents and only 1.2% of the teachers responded that it was not.

As for the item that 'Man have a stronger sexual impulse than woman', 6.1% of the teenagers, 16.8% of the parents and 17.3% of the teachers responded that it was not. This indicates that teenagers have a far stronger sexist awareness, which also reflect that the sex culture of Korean society that regards sex as man's sexual monopoly. 64.2% of the teenagers and 90.2% of the teachers responded that it was impossible to overcome the sexual impulse, whereas only 8.4% of the parents responded that it was possible. As for the item of masturbation, 64.5% of the teenagers responded that it was possible for male students and not possible for female students. 67.2 of the parents and 91.1% of the teachers responded that it was possible regardless of sex.

In case of pregnancy in adolescence, most of the responding teenagers, parents and teachers chose abortion. This indicates that respondents have a poor basic understanding of the life-despising climate, responsible sexual intercourse and motherhood protection.

As for the item of 'female refusal on male sexual approach', respondents accepted female refusal as it was in orders of teachers, parents and adolescents. As for item of 'An assaulter is entirely to blame for sexual assault', all of three groups responded in the affirmative.

**key words:** sexual awareness, parents and teenager education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지난 몇 년간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 의식을 위하여 성교육이 필요하다는 견해와 성에 관한 구체적인 지식과 정보는 오히려 성적 호기심만을 부추기기 때문에 필요없다는 견해가 양립해 오며 논란을 지속하여 왔다. 그러나 2001년부터 각급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년 10시간씩 학생들에게 성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정부의 방침은 이제 성교육은 유아기부터 가정과 사회에서 제공되어야 할 인간교육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성교육의 목표와 이를 뒷받침 할 교육방법에 대하여는 사회, 문화, 종교적인 신념에 따라 상이함을 보이고 있다. 또한 교사와 학부모들은 성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을 금기시 해 온 우리의 오랜 문화적 배경을 뒤로하고 이제 청소년 성교육의 동반자로 서야 하는 사회적 요구에 당혹스러움을 나타내고 있다. 과거 천편일률적인 남성위주의 성과 여성에게만 강요되어 온 순결중심의 성교육터널을 거쳐온 교사·학부모들은 우리사회의 왜곡된 성의식을 벗어나 성에 대한 가치관을 새로이 정립해야 하

는 시점에 놓여 있다.

청소년들은 폭력적이고 불평등한 우리의 성문화가 양산해 내는 음란하고 과장된 성의 상품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채 무차별적으로 성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있으며 그 연령대는 점점 낮아지고 있다. 신체적·정신적으로 급격한 성장과 변화를 함께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 이렇게 정수되지 않은 성의 정보와 대부분 또래집단의 한정된 교류를 통해 성을 학습해 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우리 사회는 청소년들에게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청소년들의 성문제를 이야기거리로 삼는 차원에 머물러 있었다. 청소년들에게 바른 성에 대한 갖대를 제시해 주지 못하고 방치하는 동안 청소년들의 성문제는 심각한 상태로 떠올랐고, 이러한 문제앞에 교사와 학부모, 청소년들은 무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무엇보다 청소년·교사 학부모들이 성교육을 중심으로 서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그 기초 자료로 일개시지역 학부모들의 성 의식, 성교육 태도 조사'를 하게 되었다. 연구자는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교사·학부모가 청소년들과 의식의 격차를 줄이고, 성교육의 진정한 동반자로서 설 수 있도록 교

표 1. 학부모의 일반적 특성

문항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	34	28.6
	여	85	71.4
종교	무교	38	31.9
	기독교	30	25.2
	천주교	11	9.2
	불교	40	33.6
자녀형태	아들1	3	2.5
	아들2	6	5.0
	딸1	7	5.9
	딸2	22	18.5
	딸3	4	3.4
	아들1 딸1	58	48.7
	아들2 딸2	13	10.9
	아들3 딸3	3	2.5
	무응답3	3	2.5
계		119	100

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한 청소년들이 건강한 성적 정체감을 형성해 나가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나가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학부모의 성의식, 성교육 요구도를 파악한다.
- 2) 학부모의 청소년에 대한 성적 관심과 성성숙도에 대한 견해를 알아본다.
- 3) 학부모의 이성교제에 대한 태도와 수용도를 알아본다.
- 4) 학부모의 성교육 경험과 방향을 파악해 본다.

**3. 연구방법 및 대상**

서울 시내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119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유형의 설문지를 작성하여 배포, 수거하였다.

자료분석은 SAS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백분율, 빈도 분석하였다.

**II. 연구결과 및 논의**

**1. 학부모들의 일반적 특성**

학부모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남 28.6%(34명), 여71.4%(85명)로 여자학부모가 조사에 많이 참여하였고, 종교는 불교 33.6%, 무교 31.9%, 기독교 25.2%, 천주교 9.2%로 나타났다. 사찰이 많고 전통적 농업과 어업을 주로하는 지역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 사료된다.

자녀형태는 아들 1 딸 1가 48.7%로 가장 많았고, 딸 2 18.5%, 아들 2 딸 2 10.9% 순이었다.

**2. 학부모들의 성의식**

학부모들의 성의식에 대한 문항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이란 단어를 들으면 웬지 어색하다’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41.2%가 그저 그렇다, 31.9%가 그렇지 않다, 12.6%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 반면, 13.4%와 0.8%가 그렇다, 매우 그렇다라고 대답하여 성인인 학부모들에게 있어서 ‘성’이라는 단어가 그다지 특별하거나 꺼려지는 이미지를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성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는 문항에서는 55.5%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여 최근 성에 대한 관심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사춘기에 성적인 호기심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 문항에서는 75.6%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사춘기 청소년들의 성적 호기심에 대해 부모로서 이해하고 있다고 간주된다. ‘성이란 인간육구의 하나로 자연스러운 것’의 문항에 대해서는 76.5%가 그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남자는 여자보다 성충동이 강함’의 문항에서는 57.1%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남녀 성충동의 차이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 ‘성충동은 본인의 노력에 의해서 극복할수 있음’의 문항에서는 74.8%가 그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자위행위는 남성은 해도 좋으나 여성은 해서는 안됨’ 문항은 53.7%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여 여성의 자위행위를 이해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여성의 순결은 중요’, ‘남성의 순결은 중요’ 문항에 대해서는 둘 다 각각 50.4%, 47.9%로 그렇다고 강하게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들은 성의식에서 여전히 순결을 중요시 여기고 있다고 보여진다. 학부모들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청소년 시기에 성관계를 가져도 좋다’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강한 부정적 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7.0%, 42.0%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여 청소년 시기의 자유로운 성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항목의 결과로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하여 혼전순결은 지켜야 한다’라는 항목에 대해서도 55.5%, 19.3% 대부분의 학부모가 그렇다, 매우 그렇다라고 대답하고 있다. ‘청소년 시기에 임신을 했다면 낙태를 하는 것인 최선’의 문항은 43.7%가 그렇다고 긍정하고 있으며, ‘남성의 성적 접근에 대해 여성이 안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거부하는 것’이라는 문항에서는 45.4%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성폭력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해자에게 잘못이 있다’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45.4%가 그렇다고 대답하여 학부모들이 낙태에 대한 위험성을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며 아마도 미혼의 어린 자녀의 장래를 신체적인 위협보다 더 우선으로 하고 있다는 판단이 든다. 성폭력의 책임은 언제나 가해자에게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기는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많이 희석되었음을 나타낸다.(표2참조).

표 2. 학부모들의 성의식 (괄호안은 백분율)

척도 \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성'이란 단어를 들으면 왠지 어색	15 (12.6)	38 (31.9)	*49 (41.2)	16 (13.4)	1 (0.8)
성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	14 (11.8)	*66 (55.5)	22 (18.5)	17 (14.3)	0 (0)
사춘기에 성적인 호기심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움	1 (0.8)	9 (7.6)	8 (6.7)	*90 (75.6)	11 (9.2)
'성'이란 인간육구의 하나로 자연스러운 것	8 (6.7)	12 (10.1)	*91 (76.5)	7 (5.9)	1 (0.8)
남자는 여자보다 성충동이 강함	2 (1.7)	18 (15.1)	20 (16.8)	*68 (57.1)	11 (9.2)
성충동은 본인의 노력에 의해서 극복할 수 있음	2 (1.7)	18 (15.1)	*89 (74.8)	9 (7.6)	1 (0.8)
자위행위는 남성은 해도 좋으나 여성은 해서는 안됨	16 (13.4)	*64 (53.7)	26 (21.8)	10 (8.4)	3 (2.5)
여성의 순결은 중요	2 (1.7)	5 (4.2)	18 (15.1)	*60 (50.4)	34 (28.6)
남성의 순결은 중요	3 (2.5)	8 (6.7)	24 (20.2)	*57 (47.9)	27 (22.7)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청소년 시기에 성관계를 가져도 됨	*44 (37.0)	*50 (42.0)	15 (12.6)	9 (7.6)	1 (0.8)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하여 혼전순결은 지켜야함	0 (0)	10 (8.4)	20 (16.8)	*66 (55.5)	23 (19.3)
청소년 시기에 임신을 했다면 낙태를 하는 것이 최선	10 (8.4)	26 (21.8)	18 (15.1)	*52 (43.7)	13 (0.9)
남성의 성적접근에 대해 여성이 '안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거부하는 것	4 (3.4)	23 (19.3)	24 (20.2)	*54 (45.4)	14 (11.8)
성폭력은 어떠한 상황에서든 가해자에게 잘못이 있음	5 (4.2)	24 (20.2)	11 (9.2)	*54 (45.4)	25 (21.0)
계	119(100)				

### 3. 학부모들의 자녀 성교육에 대한 견해

자녀 성교육 경험은 49.6%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험없는 경우는 50.4%이다.

최초 성교육 시기는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가 가장 많았고(21.8%), 중학교 11.8%,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도 10.1%로 나타났다. 실시한 성교육 내용을 살펴보면, 사춘기 몸의 변화(몸정, 월경)이 22.7%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고, 임신과 출산(9.2%), 순결(5.9%), 이성교제(5.9%) 등의 순이었고, 성병과 예방책, 성충동 및 성관계, 성폭력, 성희롱 예방교육, 피임, 낙태에 대한 내용은 거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자녀 성교육을 위해 부모님이 필요한 정보로는 이성교제(18.8%), 사춘기 몸의 변화(월경, 몸정)(18.3%), 순결(15.3%), 성폭력과 성희롱 관련(14.9%)가 가장 많았다. 이는 손쉽게 부모님이 생활속에서 실천하고 있는 성교육이 성교육에 대한 전체적인 조망없이 실시하고 있는 결과로 보여진다.

성에 대한 대화를 자녀들과 나누게 되는 때는 뉴스 등 방송을 통해 성폭력 사건을 접했을 때가 13.4%로 가장 높았고, 자녀가 성에 대해 질문할 때(10.1%), 생활 속에서 항상(9.2%)의 순이었다. 부모들은 교육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필요할 때마다 성에 대한 교육적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성에 대한 대화 빈도는 가끔 26.1%, 생활 속에서 항상 11.8%의 다수를 차지하였다. 성에 대한 대화 목적은 '올바른 성의식을 통해 행복한 삶을 살아 가도록'이라고 응답한 학부모가 23.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건전한 이성교제(18.5%)로 나타났다. 성에 대한 대화시 자녀의 태도는 진지하게 질문하고 자기 이야기를 하는(24.4%) 비교적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냈고, 관심있어 하나 쑥스러워 하는 편도 16.8%로 다음을 차지하였다.

성에 대한 대화 후 자녀와의 관계 변화 문항에서는 변화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24.4%, 솔직해짐이 17.6%로 성에 대한 자녀와의 대화가 일상생활 속에서의 자연스러운 분위기로 유도 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성교육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서는 대부분의 학부모가 어떻게 얘기할 지 몰라서(16.8%)라고 응답하였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알게 되므로 라는 응답도 15.1%를 차지하였다. 이는 학부모들이 성교육에 대한 올바른 방향이라든지, 구체적인 성교육 내용에 대한 지식의 부족이라 생각된다(표 3참조).

### 4. 이성교제에 대한 부모의 수용도

자녀의 이성교제에 대한 생각은 적극 찬성하지는 않으나 자녀가 원하면 찬성하겠다는 응답이 67.2%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반대는 불과 19.3%에 지나지 않았다. 이는 부모 세대의 세대교체와 사회변화에 대한 적용의 요인들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성교제 찬성이유는 친구의 범위에 남녀제한을 두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아서 19.3%, 억압보다는 자연스러운 발산 유도 18.5%, 사춘기에 이성애 끌리는 것은 당연 16.0%, 자녀에게 인생 경험의 기회 제공 13.4%로 나타나 이성교제를 찬성하는 학부모들의 다양한 이유를 알 수가 있다.

자녀의 이성교제 시 신체접촉 허용정도를 묻는 질문에 52.1%의 대부분의 부모들이 손잡기, 어깨동무하기 등은 허용하겠다는 태도를 보였고, 몸만지기라든지, 성교는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태도(0%)를 나타냈다. 청소년들의 결과에서 사랑하면 성교하겠다는 청소년들의 생각과는 달리 아직도 부모세대의 결과에서 많은 차이가 느껴진다.

이성교제 시 부모생각 범위 이상의 신체접촉을 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라는 질문에 학부모들은 책임 있는 성행동을 하도록 성교육을 하겠다 가 38.7%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고, 걱정되지만 자녀를 믿는다는 대답도 다음 순위인 11.8%였다. 억압하거나 강요하기 보다는 교육과 신뢰를 통해서 자녀와의 관계를 이루고자 하는 최근 부모세대들의 교육 방법을 짐작할 수 있다. 이성교제로 자녀가 임신을 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라는 질문에는 42.0%가 낙태를 권유하고 있고, 22.7%는 당사자의 판단에 맡긴다고 응답하였다.

표 3-1. 자녀 성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견해

문항	구분	빈도(명)	백분율(%)	
자녀 성교육 경험	유	59	49.6	
	무	60	50.4	
최초 성교육 시기	유치원	4	3.4	
	초등학교	저학년	12	
	초등학교	고학년	26	
	중학교	14	11.8	
	고등학교	3	2.5	
	무응답	60	50.4	
실시한 성교육 내용	남녀 성기관의 구조, 기능	4	3.4	
	임신과 출산	11	9.2	
	사춘기 몸의 변화(월경,몽정)	27	22.7	
	성충동 및 성관계	1	0.8	
	피임, 낙태	3	2.5	
	순결	7	5.9	
	이성교제	7	5.9	
	성병과 예방책	0	0	
	성폭력, 성희롱 예방교육	2	1.7	
	남녀 평등교육	4	3.4	
	무응답	60	50.4	
	자녀 성교육을 위해	남녀 신체의 구조, 기능	11	9.2
	부모님이 필요한	임신과 출산	11	9.2
성정보	사춘기 몸의 변화(월경,몽정)	19	18.3	
	성충동 및 성관계	9	8.5	
	피임, 낙태	4	3.7	
	순결	15	15.3	
	이성교제	18	18.8	
	성병과 예방책	1	1.2	
	성폭력과 성희롱 관련	13	14.9	
	성차별, 남녀평등	2	2.0	
	기타	7	5.9	
	무응답	60	50.4	
소 계		119	100	

표 3-2. 자녀 성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견해

문항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에 대한 대화를 나누게 되는 때	자녀가 성에 대해 질문 할때	12	10.1	
	TV나 비디오에서 남녀 신체접촉 장면을 접할 때	5	4.2	
	뉴스 등 방송 통해 성폭력 사건 접했을 때	16	13.4	
	자녀가 이성친구를 사귀었을 때	6	5.0	
	뉴스나 방송에서 성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접할 때	9	7.6	
	생활 속에서 항상	11	9.2	
	무응답	60	50.4	
	성에 대한 대화 빈도	생활 속에서 늘	14	11.8
		자주	7	5.9
		가끔	31	26.1
자녀의 질문 시에만		7	5.9	
성에 대한 대화 목적	무응답	60	50.4	
	성폭력 예방	4	3.4	
	순결을 지키도록	4	3.4	
	건강한 이성교제	22	18.5	
	음란물의 피해로부터 벗어나도록	1	0.8	
	올바른 성의식을 통해 행복한 삶을 살아 가도록	28	23.5	
	무응답	60	50.4	
	성에 대한 대화 목적 자녀의 태도	진지하게 질문하고 자기 이야기를 함	29	24.4
관심있어 하나 쑥스러워 하는 편		20	16.8	
부모와 나누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		8	6.7	
외면하고 거부하는 편		1	0.8	
무응답		60	50.4	
소 계		119	100	

표 3-3. 자녀 성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견해

문항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에 대한 대화 후 자녀와의 관계변화	친밀해짐	8	6.7
	솔직해짐	21	17.6
	어색	1	0.8
	변화없음	29	24.4
	무응답	60	50.4
성교육을 하지 않는 이유	성교육은 필요하지 않음 (모르는 게 약)	0	0
	하지 않아도 저절로 알게 되므로	18	15.1
	자녀와 성에 대한 대화가 쑥스러움	8	6.7
	어떻게 얘기할지 몰라서	20	16.8
	미처 필요하다고 생각지 못함	13	10.9
	기타	2	1.7
	무응답	58	48.7
소 계		119	100

표 4-1. 이성교제에 대한 부모의 수용도

문항	구분	빈도(명)	백분율(%)
자녀의 이성교제에 대한 생각	찬성	16	13.4
	적극 찬성하지는 않으나 자녀가 원하면 반대 안함	80	67.2
	반대	23	19.3
이성교제 찬성 이유	사춘기 이성에 끌리는 것은 당연	19	16.0
	억압보다 자연스런 자기 발산 유도	22	18.5
	자녀에게 인생 경험 기회제공	16	13.4
	친구의 범위에 남녀 제한 두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아서	23	19.3
	기타	2	1.7
	무응답	37	31.1
	자녀의 이성교제시 신체접촉 허용 정도	손잡기, 어깨동무 하기	62
껴안기(포옹)		8	6.7
키스		7	5.9
몸만지기		1	0.8
성교		0	0
기타		5	4.2
무응답		36	30.3
이성교제시 부모생각 범위 이상의 신체접촉을 한다면	스스로의 판단에 맡김	6	5.0
	걱정되지만 자녀를 믿음	14	11.8
	책임있는 성행동을 하도록 성교육	46	38.7
	야단 칠	8	6.7
	다시는 이성친구를 못 만나게 함	7	5.9
	기타(절대안됨, 허락안함)	2	1.7
	무응답	36	30.3
이성교제로 자녀의 임신시	당사자의 판단에 맡김	27	22.7
	낙태 권유	50	42.0
	출산 권유	1	0.8
	기타	5	4.2
	무응답	36	30.3
소계		119	100



표 4-2. 이성교제에 대한 부모의 수용도

문항	구분	빈도(명)	백분율(%)
자녀의 이성교제	공부에 방해	22	18.5
	성문제 야기	11	9.2
	아직 이름(성인된 후 교제 바람직)	49	41.2
	기타		0.8
	무응답		30.3
소계		119	100

자녀의 이성교제 반대 이유는 아직 이르므로 성인이 된 후 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41.2%의 학부모들이 응답하였고, 18.5%가 공부에 방해된다고 응답하였다(표4 참조).

**5. 자녀의 성적 관심과 성성숙도에 대한 학부모들의 견해**

최초로 자녀에게 성에 대한 질문을 받은 때가 언제였느냐는 질문에 학부모의 38.7%가 질문을 받아본 적 없다고 대답하였고, 중학교,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고학년(16.8%, 16.0%, 15.1%) 순으로 나타났다. 자녀에게 성에 대한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은 사춘기 몸의 변화(월경, 몽정)(35.3%), 임신과 출산(28.5%), 이성교제(18.5%), 남녀 신체의 구조, 기능(15.1%) 순으로 나타났다. 자녀들의 질문에 적절한 대답 여부는 편안한 마음으로 잘 설명(38.7%)하였고, 부끄러웠지만 아는 대로 설명(38.7%)하였다고 응답하여 자녀들의 질문에 부모들이 성의껏 대답하여야 한다는 의무감이나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성에 대한 대화시 부모 입장에서 설명하기 좋았던 내용은 사춘기 몸의 변화(월경, 몽정) 29.4%, 이성교제 29.4%로 나타난 반면, 성충동 및 성관계(1.7%), 피임, 낙태(1.7%), 성병과 예방책(1.7%), 성폭력과 성희롱예방(4.2%) 등의 내용

은 거의 설명하기 쉽게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에 대한 대화시 부모 입장에서 설명하기 어려웠던 내용은 성충동 및 성관계(37.0%), 성병과 예방책(14.3%), 피임, 낙태(13.5%), 성폭력과 성희롱 예방(11.8%)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경험해본 사춘기 몸의 변화나 이성교제에 대한 견해를 설명하기 편안해 하는 반면, 부모들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거나 부모가 설명하기 쑥스러운 내용은 성충동, 성관계, 성병과 예방책, 피임, 낙태, 성폭력 예방 등의 주제는 자녀를 상대로 교육하기 힘들어 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부분에서의 전문적 교육이 학교나 전문적 기관에서 시도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자녀가 성충동을 느낀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성충동을 느낄 것 같다고 응답한 부모가 48.7%로 대부분 자녀들의 성충동을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처음으로 성충동을 느낀 시기를 묻는 문항에 대해 중학교가 42.0%, 고등학교가 29.4%로 많은 수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초등학교 고학년도 13.4%를 차지하여 점차 성에 대해 의문을 갖고 이해하게 되는 연령이 낮아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초등학교 학생들의 성충동이나 성에 대한 의식도 심도있게 연구되어야 하리라 생각된다(표5-1참조).

표 5-1. 자녀의 성적 관심과 성성숙도에 대한 학부모들의 견해

문항	구분	빈도(명)	백분율(%)
최초로 자녀에게 성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	4-5세 정도	2	1.7
	유치원	13	10.9
자녀들에게 성에 대한 가장 자주 받는 질문	초등학교 저학년	19	16.0
	초등학교 고학년	18	15.1
	중학교	20	16.8
	받아 본적 없음	46	38.7
	무응답	1	0.8
	남녀 신체의 구조, 기능	18	15.1
	임신과 출산	34	28.5
자녀들의 질문에 적절한 대답 여부	사춘기 몸의 변화(월경,몽정)	42	35.3
	성충동 및 성관계	1	0.8
	피임, 낙태	2	1.7
	순결	3	2.5
	이성교제	22	18.5
	성병과 예방책	1	0.8
	성폭력과 성희롱 관련	5	4.2
	성차별, 남녀평등	5	4.2
	기타	13	10.9
	무응답	92	77.4
	성에 대한 대화시 부모 입장에서 설명하기 좋았던 내용	편안한 마음으로 잘 설명	46
부끄러웠지만 아는 대로 설명		46	38.7
성에 대해 무지하여 설명 어려움		15	12.6
선생님께 여쭙보거나 책을 보도록		12	10.1
성에 대한 대화시 부모 입장에서 설명하기 좋았던 내용	남녀 신체의 구조, 기능	12	10.1
	임신과 출산	16	13.5
	사춘기 몸의 변화(월경,몽정)	35	29.4
	성충동 및 성관계	2	1.7
	피임, 낙태	2	1.7
	순결	14	11.8
	이성교제	35	29.4
	성병과 예방책	2	1.7
	성폭력과 성희롱 관련	5	4.2
	성차별, 남녀평등	11	9.2
	기타	12	10.0
무응답	92	77.4	

표 5-2. 자녀의 성적 관심과 성 성숙도에 대한 학부모들의 견해

문항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에 대한 대화시 부모 입장에서 설명하기 어려웠던 내용	남녀 신체의 구조, 기능	5	4.2	
	임신과 출산	8	6.7	
	사춘기 몸의 변화(월경,몽정)	성충동 및 성관계	44	37.0
		피임, 낙태	16	13.5
		순결	1	0.8
		이성교제	3	2.4
		성병과 예방책	17	14.3
		성폭력과 성희롱 관련	14	11.8
		성차별, 남녀평등	2	1.7
	기타	34	28.6	
	무응답	92	77.4	
자녀가 성충동(성욕구)을 느낀다고 생각하는 지 여부	성충동을 느낄 것 같다	58	48.7	
	성충동을 못 느낄 것 같다	17	14.3	
	잘 모르겠음	41	34.5	
자녀의 처음 성충동시기 에 대한 생각	무응답	3	2.5	
	초등학교 저학년	1	0.8	
	초등학교 고학년	16	13.4	
	중학교	50	42.0	
	고등학교	35	29.4	
자녀의 성충동 해소 방법에 대한 생각	무응답	17	14.3	
	자위	6	5.0	
	음란비디오나 서적을 봄	8	6.7	
	이성친구와 신체접촉	0	0	
	운동이나 취미활동	49	41.2	
	술을 마심	0	0	
	흡연	1	0.8	
	그냥 참음	27	22.7	
	기타	8	6.7	
무응답	20	16.8		
소계		119	100	

**표 5-3. 자녀의 성적 관심과 성성숙도에 대한 학부모들의 견해**

문항	구분	빈도(명)	백분율(%)
자녀의 성고민 상담대상	부모	40	33.6
	형제자매	8	6.7
	친구	45	37.8
	교사	3	2.5
	친인척, 선배	2	1.7
	전문서적, 인터넷	5	4.2
	상담기관	11	9.2
	무응답	5	4.2
소계		119	100

학부모들의 자녀의 성충동 해소 방법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대해 41.2%가 운동이나 취미 활동을 한다고 대답하였고, 22.7%가 그냥 참는다고 응답하여 건전한 방법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5-2참조).

자녀의 성고민 상담 대상은 친구 37.8%, 부모가 33.6%로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상담 대상은 친구 다음으로 부모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그들은 또래집단이나 선배, 친척 등을 우선 순위로 꼽고 있으며 부모는 상담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사들은 상담대상에 친구, 학부모, 전문상담기관이라 생각하여 세 집단에서 생각하는 청소년들의 성고민 대상에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표5-3참조).

## 6. 학부모들의 성교육 방향

학부모들은 성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반드시 필요 혹은 필요하다고 95.0%가 응답하여 성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절한 성교육자로는 사회단체 및 전문가 32.8%, 부모가 함께 31.1%, 동성의 부모 22.7%, 교사 10.9%의 순으로 나타나 전문가와 학부모 자신들로 이상적인 성교육자

를 찾고 있다. 이것은 교사에 대한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성교육 시작 시기는 초등학교 고학년 36.1%, 유치원 24.4%, 초등학교 저학년 18.5%으로 나타나 6세에서 12세 사이에 양질의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성교육시 반드시 다루어야 할 내용은 사춘기 몸의 변화(월경, 몽정) 33.6%, 성충동 및 성관계 28.6%, 임신과 출산 26.9%, 이성교제 24.4%로 나타나 부모들은 사회 문화적인 성교육보다는 신체 생리적인 성교육을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6 참조).

## 7. 학부모의 자녀와의 관계

실문 조사에 응한 학부모들의 자녀와의 관계를 참고로 살펴 보면 결과는 다음과 같다.

평등한 관계에서 많은 대화를 나눔 78.2%, 공부에 대한 이야기만 나눔 16.0%,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음 2.5% 등의 순으로 나타나 대화의 빈도나 정도는 예측할 수 없으나 비교적 자녀와 대화를 잘 나누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표7참조).

표 6. 학부모들의 성교육 방향

문항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교육 필요성	반드시 필요	62	52.1
	필요	51	42.9
	그저 그렇다	6	5.0
	필요없습	0	0
	절대로 필요없습	0	0
적절한 성교육자	부모가 함께	37	31.1
	동성의 부모	27	22.7
	형제자매	3	2.5
	교사	13	10.9
	사회단체 및 전문가	39	32.8
성교육 시작시기	유치원	29	24.4
	초등학교 저학년	22	18.5
	초등학교 고학년	43	36.1
	중학교	18	15.1
	고등학교	5	4.2
	무응답	2	1.7
	성교육시 반드시 다룰 내용	남녀 신체의 구조, 기능	21
임신과 출산	32	26.9	
사춘기 몸의 변화(월경,몽정)	40	33.6	
성충동 및 성관계	34	28.6	
피임, 낙태	23	19.3	
순결	23	19.3	
이성교제	29	24.4	
성병과 예방책	9	7.6	
성폭력과 성희롱 관련	9	7.6	
성차별, 남녀평등	7	5.9	
기타	1	0.8	
무응답	10	8.4	
소계		119	100

표 7. 자녀와의 관계

문항	빈도(명)	백분율(%)
평등한 관계에서 많은 대화나눔	93	78.2
공부에 대한 이야기만 나눔	19	16.0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아이들 이야기 듣지 않는 편	2	1.7
거의 대화 나누지 않음	3	2.5
무응답	2	1.7
소계	119	100

### III. 결론 및 제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학부모의 성의식, 성교육 요구도를 파악한다.
- 2) 학부모의 청소년에 대한 성적 관심과 성성숙도에 대한 견해를 알아본다.
- 3) 학부모의 이성교제에 대한 태도와 수용도를 알아본다.
- 4) 학부모의 성교육 경험과 방향을 파악해 본다.

연구 대상은 서울 시내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119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유형의 설문지를 작성하여 배포, 수거하였다.

자료분석은 SAS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백분율, 빈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부모들의 성의식에 대한 문항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이란 단어를 들으면 왠지 어색하다”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41.2%가 그저 그렇다, 31.9%가 그렇지 않다, 12.6%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한 반면, 13.4%와 0.8%가 그렇다, 매우 그렇다라고 대답하여 성인인 학부모들에게 있어서 ‘성’이라는 단어가 그다지 특별하거나 꺼려지는 이미지를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성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는 문항에서는 55.5%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여 최근 성에 대한 관심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사춘기에 성적인 호기심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 문항에서는 75.6%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사춘기 청소년들의 성적 호기심에 대해 부모로서 이해하고 있다고 간주된다. ‘성이란 인간육구의 하나로 자연스러운 것’의 문항에 대해서는 76.5%가 그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남자는 여자보다 성충동이 강함’의 문항에서는 57.1%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남녀 성충동의 차이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 ‘성충동은 본인의 노력에 의해서 극복할 수 있음’의 문항에서는 74.8%가 그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자위행위는 남성은 해도 좋으나 여성은 해서는 안됨’ 문항은 53.7%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여 여성의 자위행위를 이해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여성의 순결은 중요’, ‘남성의 순결은 중요’ 문항에 대해서는 둘 다 각각 50.4%, 47.9%로 그렇다고 강

하게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들은 성의식에서 여전히 순결을 중요시 여기고 있다고 보여진다. 학부모들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청소년 시기에 성관계를 가져도 좋다’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강한 부정적 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7.0%, 42.0%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여 청소년 시기의 자유로운 성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항목의 결과로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하여 혼전순결은 지켜야 한다’라는 항목에 대해서도 55.5%, 19.3% 대부분의 학부모가 그렇다, 매우 그렇다라고 대답하고 있다. ‘청소년 시기에 임신을 했다면 낙태를 하는 것인 최선’의 문항은 43.7%가 그렇다고 긍정하고 있으며, ‘남성의 성적 접근에 대해 여성이 안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거부하는 것’이라는 문항에서는 45.4%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성폭력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해자에게 잘못이 있다’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45.4%가 그렇다고 대답하여 학부모들이 낙태에 대한 위협성을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며 아마도 미혼의 어린 자녀의 장래를 신체적인 위협보다 더 우선으로 하고 있다는 판단이 든다. 성폭력의 책임은 언제나 가해자에게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이는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많이 희석되었음을 나타낸다.

자녀 성교육 경험은 49.6%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험없는 경우는 50.4%이다.

최초 성교육 시기는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가 가장 많았고(21.8%), 중학교 11.8%,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도 10.1%로 나타났다. 실시한 성교육 내용을 살펴보면, 사춘기 몸의 변화(몸경, 월경)이 22.7%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고, 임신과 출산(9.2%), 순결(5.9%), 이성교제(5.9%) 등의 순이었고, 성병과 예방책, 성충동 및 성관계, 성폭력, 성희롱 예방교육, 피임, 낙태에 대한 내용은 거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자녀 성교육을 위해 부모님이 필요한 성정보로는 이성교제(18.8%), 사춘기 몸의 변화(월경, 몸경)(18.3%), 순결(15.3%), 성폭력과 성희롱 관련(14.9%)가 가장 많았다. 이는 손쉽게 부모님이 생활속에서 실천하고 있는 성교육이 성교육에 대한 전체적인 조명없이 실시하고 있는 결과로 보여진다.

성에 대한 대화를 자녀들과 나누게 되는 때는 뉴스 등 방송을 통해 성폭력 사건을 접했을 때가 13.4%로 가장 높았고, 자녀가 성에 대해 질문할 때 (10.1%), 생활 속에서 항상(9.2%)의 순이었다. 부모들은 교육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필요할 때마다 성에 대한 교육적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성에 대한 대화 빈도는 가끔 26.1%, 생활 속에서 항상 11.8%의 다수를 차지하였다. 성에 대한 대화 목적은 '올바른 성의식을 통해 행복한 삶을 살아 가도록'이라고 응답한 학부모가 23.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건전한 이성교제(18.5%)로 나타났다. 성에 대한 대화시 자녀의 태도는 진지하게 질문하고 자기 이야기를 하는(24.4%) 비교적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냈고, 관심있어 하나 쑥스러워 하는 편도 16.8%로 다음을 차지하였다.

성에 대한 대화 후 자녀와의 관계 변화 문항에서는 변화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24.4%, 솔직해짐이 17.6%로 성에 대한 자녀와의 대화가 일상생활 속에서의 자연스러운 분위기로 유도 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성교육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서는 대부분의 학부모가 어떻게 얘기할 지 몰라서(16.8%)라고 응답하였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알게 되므로 라는 응답도 15.1%를 차지하였다. 이는 학부모들이 성교육에 대한 올바른 방향이라든지, 구체적 성교육 내용에 대한 지식의 부족이라 생각된다.

최초로 자녀에게 성에 대한 질문을 받은 때가 언제였느냐는 질문에 학부모의 38.7%가 질문을 받아본 적 없다고 대답하였고, 중학교,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고학년(16.8%, 16.0%, 15.1%) 순으로 나타났다. 자녀에게 성에 대한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은 사춘기 몸의 변화(월경, 몽정)(35.3%), 임신과 출산(28.5%), 이성교제(18.5%), 남녀 신체의 구조, 기능(15.1%) 순으로 나타났다. 자녀들의 질문에 적절한 대답 여부는 편안한 마음으로 잘 설명(38.7%)하였고, 부끄러웠지만 아는 대로 설명(38.7%)하였다고 응답하여 자녀들의 질문에 부모들이 성의껏 대답하여야 한다는 의무감이나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성에 대한 대화시 부모 입장에서 설명하기 좋았던 내용은 사춘기 몸의 변화(월경, 몽정) 29.4%, 이성교

제 29.4%로 나타난 반면, 성충동 및 성관계(1.7%), 피임, 낙태(1.7%), 성병과 예방책(1.7%), 성폭력과 성희롱예방(4.2%) 등의 내용은 거의 설명하기 쉽게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에 대한 대화시 부모 입장에서 설명하기 어려웠던 내용은 성충동 및 성관계(37.0%), 성병과 예방책(14.3%), 피임, 낙태(13.5%), 성폭력과 성희롱 예방(11.8%)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경험해본 사춘기 몸의 변화나 이성교제에 대한 견해를 설명하기 편한해 하는 반면, 부모들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거나 부모가 설명하기 쑥스러운 내용은 성충동, 성관계, 성병과 예방책, 피임, 낙태, 성폭력 예방 등의 주제는 자녀를 상대로 교육하기 힘들어 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부분에서의 전문적 교육이 학교나 전문적 기관에서 시도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자녀가 성충동을 느낀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성충동을 느낄 것 같다고 응답한 부모가 48.7%로 대부분 자녀들의 성충동을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처음으로 성충동을 느낀 시기를 묻는 문항에 대해 중학교가 42.0%, 고등학교가 29.4%로 많은 수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초등학교 고학년도 13.4%를 차지하여 점차 성에 대해 의문을 갖고 이해하게 되는 연령이 낮아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초등학교 학생들의 성충동이나 성에 대한 의식도 심도있게 연구되어야 하리라 생각된다.

학부모들은 성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반드시 필요 혹은 필요하다라고 95.0%가 응답하여 성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절한 성교육자로는 사회단체 및 전문가 32.8%, 부모가 함께 31.1%, 동성의 부모 22.7%, 교사 10.9%의 순으로 나타나 전문가와 학부모 자신들로 이상적인 성교육자를 찾고 있다. 이것은 교사에 대한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성교육 시작 시기는 초등학교 고학년 36.1%, 유치원 24.4%, 초등학교 저학년 18.5%으로 나타나 6세에서 12세 사이에 양질의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성교육시 반드시 다루어야 할 내용은 사춘기 몸의 변화(월경, 몽정) 33.6%, 성충동 및 성관계 28.6%, 임신과 출산 26.9%, 이성교제 24.4%로 나타나 부모

들은 사회 문화적인 성교육보다는 신체 생리적인 성교육을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청소년 성문화는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성교육이 청소년들에게 제공되지 않는 가운데 대중매체나 음란물의 영향 아래 조성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과 거리를 좁힐 수 있는 성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지만 청소년문화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우리사회 전반에 걸친 성인들의 성문화에 대한 고민이 우선되어야 한다. 청소년과 학부모·교사간 성의식, 성적 행동, 이성교제, 성교육에 대한 방향 등에서 많은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어느 시대, 어느 나라를 불문하고 청소년은 성인들이 언제나 따라잡기 어려운 사고와 행동을 하는 특수집단으로 그들의 질풍노도와 같은 성장기를 감안할 때 자연스러운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또래집단의 막강한 영향속에서 생활하고, 음란물을 통해 배우게 되는 성의 이미지가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기까지 자신의 성적 행동을 결정짓는데 많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학부모·교사 더불어 이 사업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은 공적영역에서 쾌락위주의 단편적인 성의 모습이 아닌 인간의 전 생애를 거쳐 함께 하는 총체적인 성을 보여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방안을 끊임없이 모색해야 한다. 결국 새롭게 성에 대해 학습한 청소년들은 기존 성인들의 저변의 성문화를 답습해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그들만의 성문화를 힘있게 살려갈 수 있는 시도를 시작해 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1. 학부모 대상의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3. 개발된 성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한뒤 그 효과를 검증한다.

## 참고문헌

- 권이중. 청소년과 교육병리, 양서원 1992.
- 권혁창. 중등교사의 성지식과 성교육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 김미주. 초중고등학교 성교육 교재 분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 김성주. 초등학교 성교육의 실제, 교육월보 1996; 8: 51-55.
- 김은자. 일 대학교 남녀학생 특성에 따른 성에 대한 지식, 태도, 경험의 실태와 성교육 요구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8.
- 김주연. 일부대학생들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성 경험에 관한 조사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 김현경, 최수정, 김미영, 양경미, 임미림. 성지식, 성태도에 관한 우리나라 연구내용 분석, 보건교육. 보건증진학회지 1999; 16(1).
- 김혜자. 성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강원교육 1997; 155.
- 남명희. 일부 대학생들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성 경험에 관한 조사연구, 지역사회 간호학회지 1999; 10(1): 239-251.
- 박순선. 국민학교 5,6학년 학생의 성교육 실시 전후 성에 관한 지식 및 태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 박영신. 일부 사범대학생의 성에 대한 태도와 성교육 요구에 관한 연구, 중앙의학 1988; 53(6): 393-413
- 성영자. 남녀대학생들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 경험과 상관변인에 관한 분석연구, 중앙대학교석사학위논문 1984.
- 손호은. 국내 성교육용 영상교재에 관한 연구: 중고등학교 과정을 중심으로, 효성여 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 안창선, 김현옥 편역. 학교 성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1991.
- 양순옥, 임미림. 청소년 대상 인쇄매체 성교육 자료 분석, 한국보건간호학회지 1998; 12(2).
- 양순옥, 정금희, 백성숙. 강원도 중학생의 성태도와 경험, 지역사회간호학회지 1998; 9(2): 482-501.
- 오윤정, 김정남, 하숙영. 일부 중학생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성교육 요구도에 관한 조사연구, 지역사회간호학회지 1998; 9(2): 467-481
- 이광옥, 양순옥, 임미림. 청소년 대상 영상매체 성교육 자료 분석-비디오를 중심으로-, 지역사회간호학회지 1998; 9(2): 441-457
- 이규은, 윤양소. 1개 지방도시 대학생의 성폭력에 대한 지식 및 태도조사, 지역사회간호학회지 1998; 9(2): 425-440.



- 이근후. 사회변화와 성교육, 교육월보 1996 ; 8 : 44-47
- 이순열. 성교육 도서를 활용한 성교육 지침 실천 연구, 구로중학교 1991.
- 이영희, 박미라, 송미숙, 유진희, 최순남, 한유미, 황윤정. 대학생의 성지식과 성교육 요구에 관한 연구-인천시 일개 대학을 중심으로-, 대한간호학회지 1997 ; 27(1) : 26-35
- 이요식, 김재인, 정해숙, 양애경. 제6차 교육과정에서의 성교육 내실화 방안,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1992.
- 이윤선, 이근후. 청소년기 성태도 형성과 그 중요성에 관한 통계적 관찰, 신경정신의학 1987 ; 26(1).
- 이인자. 일부대학생들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 경험 및 성교육 요구에 대한 조사연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 임미림. 중학생의 성교육실태에 대한 조사연구, 간호과학 1996 ; 8(2) : 201-212.
- 전광문. 우리나라 청소년의 성문제 현황, 고등학교 성교육 세미나 보고서, 한국교육개발원 1983.
- 정아영. 여고생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 관심도에 관한 조사, 충남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 하숙영, 김정남. 성교육이 여자 중학생의 성지식과 성태도에 미치는 효과, 지역사회간 호학회지 1999 ; 10(1) : 227-238
- 한유정. 성교육이 중학생의 성지식과 성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 America 의사회. 인간의 성, 학우사 1982.
- Evelina Menez Mendoza. Sex Misinformation of Teachers in the public Elementary Schools of Caloocan City and Their Implications of to Health Education,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1972 ; 145-150.
- Harrison, J., Glass, CA., Owens, RG. & Soni, BM. Factors associated with sexual functioning in women following spinal cord injury, Paraplegia 1995 ; 33 : 687-692.
- Hayter, M. Is non-judgemental care possible in the cotext of nurses' attitudes to patients' sexuality, Journal of Advanced Nursing 1996 ; 24 : 662-666
- Hurlock, E. B. Child Development, NewYork: Mcgraw-Hill Book Co 1973.